



우리집 안전 이렇게 지켜요 ...

새해소원으로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가족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올 1월에는 가정 내 안전용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익히는 등 가족 안전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보자.



대피요령만 알아도 걱정 없어요

과 습기가 없는 곳이 좋다. 아이가 어린 집이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은 눈에 잘 띄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대처요령 익히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신고 화재시 출입구 확보하며 소화

화재나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이때 기본적인 대처요령만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안전교육은 현장 체험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소방방재본부 김광진 구조구급과장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으면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119로 신고 전화를 한다. 가정용 전화기를 두는 곳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간단한 위치 설명을 적어 붙여 두면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 신고 후 불씨가 크지 않아 초기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화기를 사용한다. 이때 출입구를 등진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야 만일의 경우 집 밖으로 대피할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자욱하면 수건을 물에 적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성급하게 창문으로 뛰어 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가려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피난시에는 정전으로 멈출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진은 우리나라에 흔히 일어나지 않는 재해라 대비도 그만큼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평소 건축물 관리에 소홀했다면 집이 무너지는 참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진이 났을 경우 보통 크게 흔들릴 때의 진동시간은 1~2분 정도이므로 테이블이나 식탁 밑 등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가스버너 등의 불은 즉시 끄고, 문이 뒤따러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강한 지진이라면 건물 밖으로 탈출이 가능한 통로를 파악한 후 방석 등으로 머리 부분을 보호한 후 대피한다.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119구조대 등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한다.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소방방재청

▷ 안전용품 점검하기

소화기 비치장소 알아두어야 구급약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

먼저, 머릿속에 집 구조를 떠올려보자. 우리 집 소화기는 어디쯤에 있을까? 소화기 위치가 단번에 떠올랐다면 '안전과수관'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

가정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용품. 그 중에서도 소화기는 필수 구비 품목이다. 가정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가 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가정에서는 분말 형태로 3.3kg 정도의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적당하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전문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경우 한 달에 한번씩 소화기를 뒤집거나 흔들어서야 분말가루가 굳지 않는다. 소화기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환관 또는 거실 구석에 두고 가족들에게 소화기 비치 장소를 알려준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다. '안전핀을 뽑는다'는 기본 사항은 알고 있지만, 막상 불이 났을 경우 당황해 손잡이를 꼭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는다.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소화기를 바닥에 둔 상태에서 안전핀 고리를 잡아당기면 쉽게 빠진다.

아파트의 경우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도 익혀둔다. 소화전의 문을 열고 호스를 화재지점까지 끌고 가서 늘어뜨린 후 소화전함의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 물이 나온다.

구급상자 역시 응급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한 물품이다. 구급상자에는 소독약과 멸균거즈, 탈지면, 핀셋, 체온계, 가위 등 기본적인 구급용품과 감기약, 해열제 등의 약품을 마련해 둔다. 구급상자는 6개월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한다. 보관은 직사광선



▷ 안전교육은 여기서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힘들다면 가족이 함께 전문 기관이나 시설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safe119.seoul.go.kr)'은 화재 진압실, 풍수해 체험실, 지진 체험실 등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공간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게 했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02)2049-406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1588-5889



인류 문화속의 茶

20. 명대의 음차

명(明, 1368-1644)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 탁발승(托鉢僧)이 되어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 이런 힘들었던 시절은 백성의 질곡(絀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차농(茶農)들이 조정에 공납하는 단차(團茶)를 만들기 위해 받은 고통과 폐단을 알았던 그는 홍무 24년 1391년 단차의 제조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 더 이상 조정에 단차를 내지 않자, 민간에서도 자연히 단차의 제조가 쇠퇴되었고 산차(散茶, 일차)가 전면적으로 유행했다. 이에 따라 산차를 생산하는 농가가 광범위하게 증가했으며, 다양한 제다법이 출현했다.

한편 다양한 종류의 화차(花茶)가 출현해 생산되었지만 대중적인 상품화(商品化)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문인들 사이에서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직접 화차를 만들어 마시는 고상한 취미가 유행해 갖가지 화차를 만드는 방법을 다서(茶書)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명조 주권(朱權)의 <다보(茶譜)>에는 차에 꽃을 첨가하여 향기가 배어 들게 하는 방법인 '훈향다법(熏香茶法)'이나 고원경이 <다보>를 수정보완하면서 연화차(蓮花茶)의 제조법을 상세히 기록한 것도 이런 예이다. 단차의 복잡한 제작과 응용에서 벗어나 화차의 출현과 산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은 차의 다양한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 문화의 전환기인 명대 차의 특징이다.

단차의 복잡한 제작법 벗어나 다양한 화차 출현

절차 까다로운 예절·접대 피할 것 등 금기사항 생겨

명초(明初) 주원장은 전통문화를 소생시키기 위해 문신들을 관리로 등용했지만 조금이라도 계율에 어긋나면 엄한 형벌로 다스렸다. 이러한 고압정책으로 인해 문인들이 더 이상 뜻을 펼치지 어려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는



문징명의 품다오(品茶圖)

중국 명차(茗茶)는 많은 고사나 전설을 동반하고 있어, 사람들이 풀은 물에 차잎을 넣어 우려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때 이러한 고사들은 즐거운 이야기 거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중국인들은 차의 명칭에 매우 중

요한 의미를 부여 실제보다는 항상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여산시, 서화로 세월을 보내며 자신들의 고상한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를 마시며 담론하고 시·서화를 논하는 문인들의 다회를 유행하게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권(朱權), 문징명(文徵明) 등이 있다. 문사들은 차의 특징을 몸소 체험해, 차인들의 청절과 스스로 분발하는 적극적인 정신을 차에 반영하여 자기의 이상(理想)을 표현했다. 차를 마시는 도구에 아주 심오한 뜻이 담긴 어휘(語彙)를 만들어 내었다. 예를 들어 죽자노(竹茶爐)를 '고절군(苦節君)'이라고 칭하였으며 차를 담는 도량(都量)을 '고절군 행성(苦節君 行省)'이라 했다.

이처럼(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차의 명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 실제보다는 항상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여산시의 운문차는 주원장이 군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어 황제가 된 후에 더욱 유명해져 빠르게 확산된다.

명 말에 이르러서는 차를 마시기에 적당한 조건으로 세상에 없애지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며, 마음까지 고상하여 뜻과 신념이 일치하는 다객(茶客)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겨났다. 또한 시로서 차의 흥취를 도와야하고, 다도에 정통해 차의 색·향·미를 맛 볼 줄 알아야 한다. 다구의 질이 떨어지거나 깨지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절차가 까다로운 예절이나 접대는 피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차의 금기 사항도 생겼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하며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언약이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경성애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명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